

7월 4~5일 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 예상강수량(4~5일): 제주도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 강풍·풍랑, 천둥·번개로 인한 안전사고 유의 및 많은 비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이용섭)은 7월 4일(화) 새벽부터 5일(수) 아침사이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붙임 참조).

특히, 5일(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해상에서는 4일(화) 밤부터 5일(수) 밤사이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호우·강풍·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용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와 천둥·번개에 의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니, 시설물 점검 철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해안가에서는 너울, 해상에는 높은 물결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2023년 7월 4~5일 예상 위험기상 설명자료
2. 과거 유사 사례시 제주도 호우·강풍 피해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사무관	김길엽 (064-909-3920)



[7월 4일(화)~5일(수) 예상 기압계 모식도]

1 강수전망

- 제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4일(화) 새벽부터 5일(수) 아침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호우) 제주도에 4일(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특히, 저기압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남~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5일(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분석하였다.

- 25일부터 현재(7월 3일 12시)까지 제주도에 200~350mm(제주도산지 8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 계곡, 하천 상류의 호우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 야영 자체
-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 고립 가능성,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유의
-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
- 하수도과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이 높음
-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 천둥소리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 출입 자체

< 예상 강수량(4~5일) >

○ 제주도: 50~100mm (많은 곳 150mm 이상)

- (가시거리) 한편, 비가 내리는 곳으로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며,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중산간 이상의 지역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변동성) 이번 강수는 정체전선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집중시간과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고, 6일(목) 이후에도 제주도 주변으로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강풍과 풍랑 전망

- (강풍) 5일(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밖의 해안지역에도 순간풍속 70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풍랑) 4일(화) 밤부터 5일(수) 밤까지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5~60km/h(10~16m/s)로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밖의 해상에도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당분간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고, 제주도해안에는 강한 남풍이 지속되면서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한편, 8일(토)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져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대조기)으로,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너울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 (유의사항) 7월 5일(수)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 간판, 해수욕장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물결로 인한 해상 안전 사고 및 너울로 인한 해수욕객, 갯바위 낚시객, 해상 어업 활동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사사례1) 2019. 6. 26.

'요란한 첫 장맛비' 제주 전역 호우경보...침수 피해도(종합)

26일부터 늦은 장마 본격 시작...제주도 전역 호우특보

송고시간 | 2019-06-26 13:2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09:49 수정 2019.06.26 10:02



제주도 재난본부 '비상 2단계' 발령

(제주=연합뉴스) 전지예 기자 = 26일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됐다.



제주 장마 시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장마가 시작한 26일 오전 우산들은 학생이 제주도 아리동 제주대 캠퍼스를 걷고 있다. jhcopark@yna.co.kr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제주도(제주·서귀포 평균)의 평년(1981~2010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20일로, 올해는 장마 시작이 평년보다 일주일여 늦어졌다.

새벽부터 제주 곳곳에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76mm, 서귀포 87.6mm, 성산 81.4mm, 고산 104.9mm, 태풍센터 149mm, 대정 143.5mm, 신례 127.5mm, 색달 124.5mm, 한라산 삼각봉 196.5mm, 성판악 182mm, 윗세오름 181.5mm, 영실 175mm 등이다.

제주 남해 집중호우 예상...밤부터 전국 확대



26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제주=최승훈 기자] 26일부터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9시를 기준으로 제주도과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제주산간을 비롯해 제주서부 북부 남부 동부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제주산간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 짧지만 굵은 장마...국지성 호우 잦을 듯

기상청은 26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00mm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20~6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봤다.

장마전선은 이날 오후 일본 남쪽으로 잠시 물러났다 주말쯤 다시 북상해 또 한 차례 장마비를 뿌릴 전망이다.

올해 장마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예년(6월 19일 시작)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시작했다.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보다 늦었지만, 종료 시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년보다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강해 남쪽의 더운 공기와 강하게 대치하면서 좁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유사사례2) 2018. 6. 30.

"우르릉 광" 장맛비 덮친 제주, 기습적 폭우로 침수피해 속출

(유사사례2) 2021. 7. 3.~4.

한라산 200mm 장맛비...제주 내일까지 최대 150mm 더 내리

A 박성우 기자 (paw@yna.co.kr) | © 입력 2018.06.30 14:15 | # # #

입력 : 2021-07-04 11:21 / 수정 : 2021-07-04 12:50



▲ 30일 오전 내린 폭우로 침수가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구덕읍 앞대 농경지. ©제주소리

제주 전역에 많은 비...'시간당 50mm' 동부지역 침수 피해신고 잇따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전동-반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의 경우 시간당 50mm를 넘어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한때 태피수 등이 벌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제주지역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고 있다. 모레(7월 2일)까지 제주도 전역에는 100~2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산간지역



지난 3일 오후 9시 59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장 펠스가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9년 만의 '자카 장마'가 시작된 제주 지역에 밤사이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9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장 펠스가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또한 전날 오후 10시14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에서 간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현 재까지 비바람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27mm, 서귀포 47.3mm, 성산 62.9mm, 고산 33.6mm, 한라산 삼각봉 202mm, 진달래밭 163.5mm, 가시리 94.5mm, 태풍센터 92mm, 새별오름 89mm 등이다.